

라운아띠 8기 필리핀팀 10월 활동보고서

Sabay-Sabay Ta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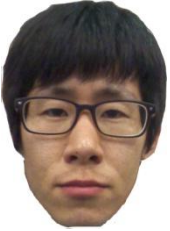
(Let's do it together!)



산 파블로 YMCA와 필리핀 팀이 함께 합니다.

1. Philmony with YMCA of San Pablo city

Manny (하민수) : 털남, 스캔들남, 농구남, 자남? 화남? 콜라 감별사



특징 : 12 월 팀 리더. 한 필리핀 여자에게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함. 여자 앞에서 적극적으로 변신함. 아이들이 은근히 좋아한다. 생각을 많이 한다. 잠도 많이 잔다.

잘 하는 것 : 자는 것, 먹기 싫은 거 꼭 참고 먹기, 농구, 군것질 하기

Sean(안순규) : 돌쉐코, 라이언 방, 코만남 (코 만지는 남자), 숨은 여자킬러



특징 : 11 월 팀 리더. 무표정이면 무섭다. 경험 상 맛있는 음식은 안 먹는다

(우리한테 안 알려줌) 항상 보면 뭔가(게임과 카톡)를 하고 있다. 다리가 여자 뽀뽀하게 예쁘다.

잘 하는 것 : 쪼물쪼물 만들기, 비난하기, 째려보기, 코 만지기, 게임, 여자랑 빨리 친해지기

Liz(이예은) : 삼등신 마리오, 변태, 라이언 빠순이, 짜당예은, 몽고다운증



특징 : 9 월 팀 리더.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크다. 호탕함. 호흡이 짧다. 집중할 땐 세상이 끝난 표정이다. 몸을 잘 못 가늠다. (잘 넘어지고 잘 박는다) 과일과 떡(Puto)을 잘 먹음.

잘 하는 것 : 소리지르기, 창, 비비크림 바르기, 수건으로 슬리퍼 닦기, 비타민 챙겨먹기, 밥 먼저 뜨기, 마미 귀찮게 하기

Jina(이금선) : 네이티리, 부띠끼, 즐리비, 허리만 8 등신, 빵빵해, 못생긴게, 따바, 콜레스테롤, 요가파이어, 파레



특징 : 10 월 팀 리더. 동네 북이다.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놀림) 약점이 엄청나게 많다.

친절한데, 여성스러울까? 4.5 할이 허리, 활 잘 쓰게 생김, 무릎이 나가도 요가는 계속된다.

잘 하는 것 : 요가, Batang Y 랑 놀기, 타갈로그어, 약점 노출하기, 요리하기

YMCA FAMILY(총장님과 Batang Y 삼총사)

마미(크리스티 총장님): Talkative, 몸에 안 좋은 음식 골라먹기, 채소 안 먹기, 페이스북 하기

추진력이 남다름, 라온아띠 챙기기, 고양이 찾기, 예쁜 척 하기, 친화력이 매우 좋으심.

아이안(아들): 매 끼마다 혼자 햄 먹기, 이방 수염, 카오스하기, 머리에 왁스 칠하기, 잡기에 능함

잭(딸): 짹대기, '언니, 오빠' 말하기, 맨날 친구 3 명하고 다니기

제프리: 원숭이, 일 겁나 잘함, Batang Y 의 리더, 늘 웃음을 달고 살고 친절함, 금선바라기, 이상한 타갈로그어 가르쳐주기, 절반은 한국인, 몸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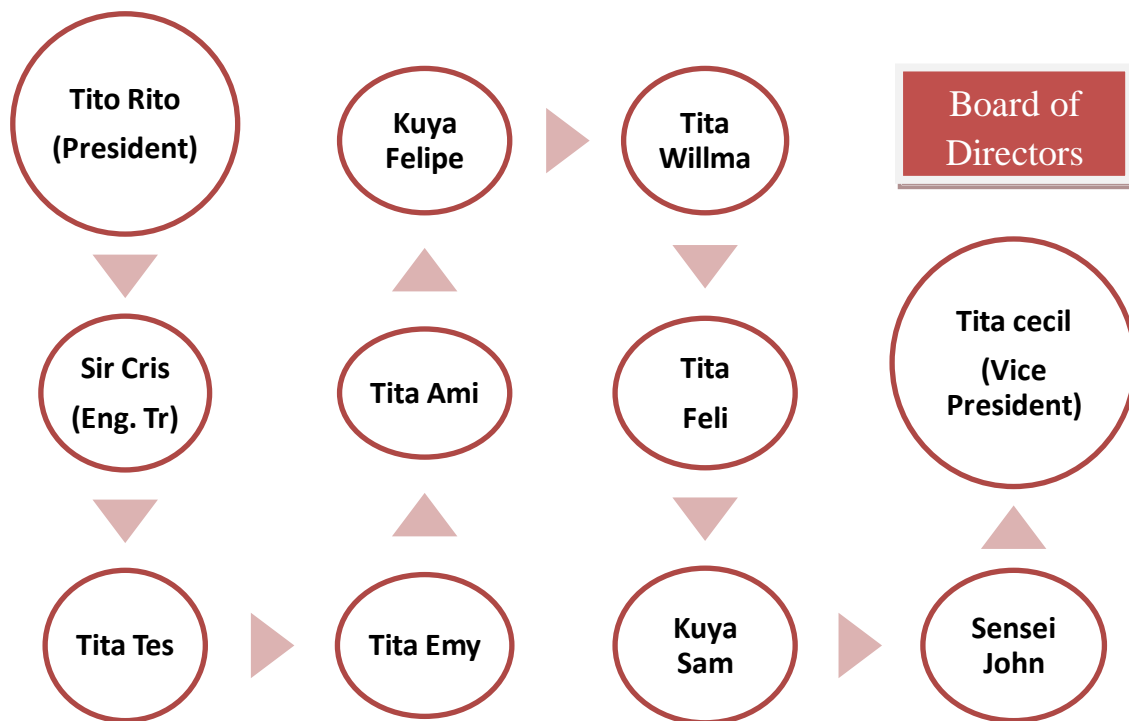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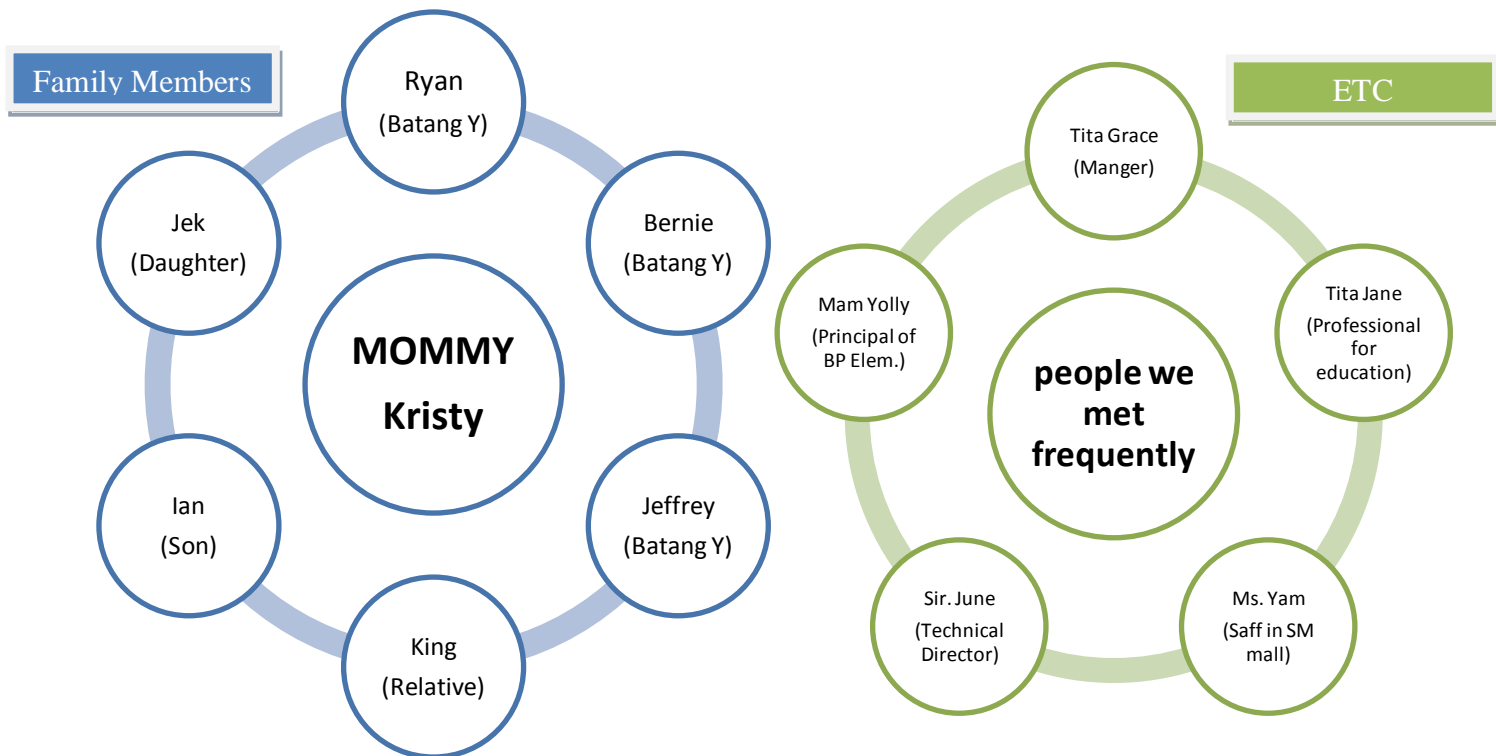
버니: 늦잠꾸러기, 청소 열심히 하기, 가끔 혼자 사색에 빠지기, 마미 커피셔틀, 셋 중 가장 브레인, 일 잘함, 노래하는 거 좋아함

라이언: 올챙이, 일 은근히 잘함, 가벼움, 팔다리 길쭉길쭉, 손도 매우 큼, 미소가 아름다움, 낮 가림.



- 필모니(Philmony) : 라온아띠 8 기 필리핀팀의 팀명. Philippine 과 Harmony 의 합성어로, 필리핀에서 조화롭게 활동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음

2. 인물 관계도



3. 10월 스케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Korean day	2 BRGY VI-D Vita meal 영어수업	3 현판 부착 CIT 보고서 작성	4 Feeding 의료봉사 영어수업	5 Teacher's day	6 티니클링연습 영어수업
7 뺏지&팔찌 판매 (쌘빨록 호수) 보고서 작성	8 End poverty campaign 준비	9 교육부 방문 (자료요청) 영어수업	10 땅콩버터 만들기 9 월보고서 제출	11 Feeding 영어수업	12	13 World challenge
14 EPC 준비	15 EPC 준비 교육부 (ALS) PAG-IBIG AT PAG-ASA	16 EPC 준비 BRGY VI-D SM mall	17 End Poverty Campaign	18 Feeding 축제(산루카스)	19 9 월 보고서 작성(영문)	20 마사지
21 Reflection	22 CIT contest EPC 보고서 작성 SM mall	23 Cristy 아버지 생신 EPC 보고서 작성 영어수업	24 EPC 보고서 제출	25 Feeding (in YMCA) 팔찌 만들기 영어수업	26 ALS 팔찌 만들기 결혼식	27 팔찌 만들기 땅콩버터 만들기
28 Cristy 생신 마라톤 대회 (쌘빨록 호수) Reading program 회의	29 PAG-IBIG AT PAG-ASA (Feeding 회의) Reading program 회의 ALS	30 바공포옥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미팅 영어수업	31 Feeding Reading program 회의 ALS			

4. 필리핀 팀의 주요활동

♥ End Poverty Campagin

- 산 파블로 시티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생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인원이 전체의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경우가 가정 형편에 의한 학업 포기인데, 아이들의 학업 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모금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DGs 중 두 번째 '교육'과 여덟 번째 '연계' 초점을 맞춰서 '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배지와 팔찌를 제작해 팔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피딩 등의 프로그램 진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캠페인 당일 오전에는 교육부 관계자와 순규 단원이 빈곤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 파블로 시티의 현 상태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중간중간에 강남스타일과 티니클링 등 공연도 함께 했습니다. 오후에는 End poverty 를 상징하는 하얀색 리본에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300 여 명이 참가를 했고, 앞으로의 후속 활동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Feeding Program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 PAG-IBIG AT PAG-ASA School)

- 지속적인 피딩과 액티비티로 아이들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최근에는 바이타밀(Vita Meal)을 지원받아서 주 1 회 하던 피딩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월요일에는 PAG-IBIG AT PAG-ASA school, 수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는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등 주 4 회로 늘리기 위해서 기획 중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점심을 먹지 못하는 바공포옥의 40 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점심 피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ALS program

- End poverty campaign 이 후에 본격적으로 ALS program 을 시작했습니다. 10 말에 예정되었던 시험이 내년 1 월로 미뤄져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Baloc 이나 다른 Community 의 학생들은 참석하지 않고 있고 Batang Y 만 수업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영어인 두 단원이 영어 수업을 다른 두 단원이 수학 수업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정규 수업은 금요일 오전이고, Batang Y 의 경우는 월요일 저녁에 영어, 수요일 저녁에 수학 수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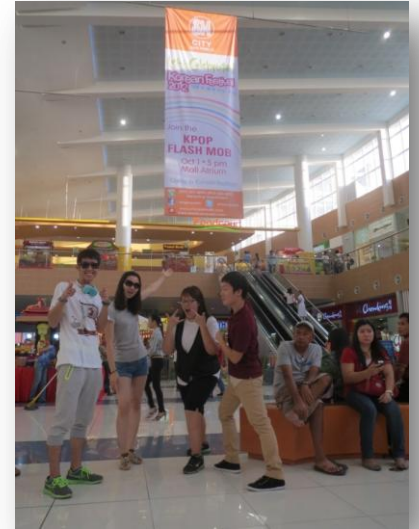
♥ World Challenge

- 10 월 13 일은 YMCA 에서 농구라는 스포츠를 만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YMCA 에서 'World Challenge'가 열렸습니다. 산 파블로 YMCA 에서는 'Shoot that ball'이라는 주제로, 3on3, 3 점 슛, 레이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구성원 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 Korean Day

- 10 월 1 일 SM mall 에서 Korean day 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인은 저희뿐이었습니다. SM mall 내에서 CIT 댄스팀을 비롯한 여러 팀들과 연합해서 '강남스타일'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희를 이용하는 것 같고, 저희가 이 지역에 온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절하려 했지만, 지역 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기념으로 SM mall 측에서 기념 티셔츠를 주었는데, 저희의 요청으로 World challenge 로고를 새겨주어서, World challenge 행사 때 사용하였습니다.



♥ Fun Run

- 'Fun Run'이라는 주제로. 10 월 28 일 Sampaloc lake 에서 마라톤대회가 열렸습니다. 총 4 킬로미터의 거리를 YMCA 가족들 모두 완주를 했습니다. 특별히 금선 단원은 여성 중에서 8 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도 내년 1 월에 End Poverty Campaign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수많은 강남스타일!!!

- 전 세계가 그렇듯이 필리핀 또한 강남스타일의 열풍에 휩싸여있습니다. 이 곳 사람들에게 한국 = 강남스타일 이라는 공식이 생긴 듯 합니다. 그 때문에 World challenge, Fun Run 등 수 많은 곳에서 강남스타일 춤을 찾습니다. 강남스타일을 통해서 라온아띠의 존재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 Medical Mission

- 10 월 4 일 SM mall 에서 의료봉사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혈압측정과 시력 검사, 상담 등 내과 위주의 진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SM mall 측의 요청으로 저희가 가서 접수와 안내를 도왔습니다. 특별히 활동이 끝난 이 후에 의료봉사팀으로부터 비타민을 후원 받았는데, 비타민은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 기타(땅콩버터 만들기, 노인의 날 행사, Teacher's day)

- 발록 나나이들에게 땅콩 버터 만드는 법을 전수 해주었습니다. 땅콩 버터 판매가 발록 주민들에게 하나의 경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마을인 BRGY VI-D 에서 노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퍼레이드부터 본 행사까지 함께 참여했고, 배지와 팔찌를 판매하며 End poverty 홍보도 하였습니다. 10 월 5 일은 World Teacher's day 라고 합니다. SM mall 에서 행사를 하였는데, 가장 예쁘고 잘 생긴 선생님을 선발하는 Contest 가 있었습니다.



5. 이번 달의 회의록 (10월 18일자)



금선 : 드디어 앤드 포버티 캠페인이 끝났어요!!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잘 마무리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민수 : 그러게. 생각보다 호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 평일이었는데도 말이지.

예은 : 하루 종일 말하고 서있었더니 힘드네요..

순규 : 그래도 진짜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금선 : 기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마무리를 했으니 캠페인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된 점이나 아쉬운 점이나 고쳐야 할 점 같은 것 말이에요. 후속활동도 한다고 했으니까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아요.

순규 : 사실 캠페인 전에는 아이디어 정리도 잘 안 되어있는 상태였고 파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핀, 팔찌 판매도 잘 되고 앤드포버티 나무도 잘 완성된 것 같아요. 캠페인 당일 날에도 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해주어서 생각보다 성공적인 캠페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은 : 일반인들의 참여도가 오전에 많이 떨어져서 아쉬웠어요. 평소에 빈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이었는데 목표가 잘 달성된 건지는 조금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래도 오후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비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단추는 잘 완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그치지 말고 후속작업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실행해 보도록 해요.

금선 : 캠페인 하다가 실수할 만한 경우가 많았는데 다들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캠페인 자체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너무 퍼포먼스에만 치중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충분히 모든 내용들을 숙지했는지, 또는 참여자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은 : 빈곤의 본질, 캠페인 하는 이유,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야만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페인의 의미를 잘 찾고,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생각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후속활동 때에는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해 봅시다.

민수 : 다들 충실히 각자의 역할을 잘 한 것 같아.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만으로 END POVERTY 가 될까? 사실 활동 중간에 우리 뭐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우리가 빈곤에 대해 설명한다고 인식 변화가 있을까? 그냥 프로그램 참여만 하고 가는 건 아닐까? 너무 이벤트 성이 아닐까?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상 캠페인을 하니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시작점부터 약간 본질을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순규 : 꼭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수준에서는 당장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에게라도 빈곤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설명해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수 : 아 근데 나 영어 좀 하게 해줘. 나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계속 와서 내 말을 막는거야.

에은 : (웃음)아. 죄송해요! 오빠 사진 찍는 것에 집중하시라고. 아 그리고 벌써 우리 팀 페이스북 가입자가 있어요. 벌써 사진 찾고 있네?

금선 : 만든 보람이 있네요. 월요일까지 사진 올리기로 해요. 캠페인 참여자들이 주위 친구들한테도 홍보하겠죠?

순규 : 발표하면서 느낀 건데 타깃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가 동원한 사람들조차 내 발표를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후속활동 때에는 타깃을 잘 잡고 조금 더 흥미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초점은 교육인데 그 중에서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이니까 같은 또래 사립학교 아이들에게 주위 친구들의 상황과 빈곤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도움을 줘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게임 같은 걸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에은 : 후속 활동 잘 해봅시다! 아 그리고, 우리가 됐거나 생각한 것도 안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활동간 꼼꼼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 파블로 Y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더 좋은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 모두 임기응변 능력이 전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캠페인 중간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다들 잘 대처한 것 같아요.

금선 : 할말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도록 해요. 오늘 잠도 별로 못 잤잖아요. 후속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봐야 하니 계속 이야기 해보도록 해요. 오늘 끝!

민수 : 오늘 끝. 굿 나잇.

6. 라온아띠 고정 스케줄

	월	화	수	목	금	토
9:00~11:30 A.M.			바공포옥 초교 아침피딩	바공포옥 초교 아침피딩	대안교육 <나는 할 수 있어!> 수업	바공포옥 초교 독서 체험 프로그램 및 점심 피딩
11:30 A.M. ~12:30 P.M.		바공포옥 초교 점심피딩		바공포옥 초교 점심피딩		
1:30~4:00 P.M.	대안교육 영어수업 (3 시~5 시)	대안교육(알스) 수업준비 (2-5 시)	대안교육 수학수업 (3 시~5 시)		발록의 어머니모임 조직	정기 팀 회의
4:00~6:00 P.M.						음악 수업
6:00~8:00 P.M.		영어 및 타갈로그어 수업		영어 및 타갈로그어 수업		
8:00 P.M. and later~		정기 팀 회의		정기 팀 회의		

7. 향후 계획

♣ **Feeding** : 바공포옥 초등학교는 4 일 동안 주 5 회의 피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타밀(Vita Meal)이라는 잡곡을 제공하는 후원자를 찾은 덕분에 피딩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학교(장애인학교)는 주 3 회 피딩을 하되, 라온아띠는 월요일 오전에 주 1 회만 피딩에 참여합니다. 바공포옥 초등학교 피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	수	목	토
점심 피딩	아침 피딩	아침 피딩, 점심 피딩	아침 피딩
교장 선생님의 특별 요청에 따라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학생 42 명만 피딩	전교생을 대상으로 피딩을 진행하되, 예산과 인력 문제로 한 달에 1 회 이상을 목표	9,10 월에 해온 대로 학교에서 선정한 학생들(90 여명)에게 피딩 (점심 피딩은 화요일과 동일)	초등학교 내의 도서관과 연계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뒤, 점심 피딩 진행

♣ **ALS** : 라온아띠는 탈 학교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Alternative Learning) 에서 영어와 수학 과목을 담당하여 매주 주 3 회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세 커뮤니티(발록 Baloc, 산그레고리오 San Gregorio, 가와드 칼링아 Gawad kalinga)에서 온 10 명 이내의 수강생과 바탕와이 두 명(제프리, 라이언) 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날은 금요일입니다. 바탕와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YMCA 로 오는 데 교통비가 들기 때문에 1 회 이상은 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수업을 몰아서 합니다. 오전에는 라온아띠가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총장님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십니다. 바탕와이는 라온아띠와 숙소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월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영어와 수학 수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어는 이예은, 안순규 단원이, 수학은 이금선, 하민수 단원이 담당합니다.

알스 시험은 80 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으며, 시험은 따갈로그어 에세이, 따갈로그어, 영어, 수학, 과학 및 사회, 상식 등 총 6 개 영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중 따갈로그어 에세이의 비중이 50 퍼센트로 가장 높고 다른 과목들은 각각 10 퍼센트 비중을 차지합니다.

♣ **도서관** : 구입은 하였으나 아직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책을 곧 받을 예정입니다. 전 기수로부터 책 목록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오는 11 월 10 일(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의 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이곳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바공포옥 초등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월부터는 이곳의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라온아띠가 떠난 이후에도 토요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토요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아이들의 작품을 도서관 내부를 꾸미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토요 프로그램 이외에 도서관의 책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빈곤퇴치 캠페인 :**

1. 산 파블로 시티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 마련하기

- 부모님과의 미팅: 바공포옥 초등학교에서 피딩을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모셔놓고, 피딩의 취지를 설명 드리고 지속적으로 학교에 오게 도와달라고 부탁 드릴 계획입니다.
- 사립초등학교 학생들과의 미팅 : 산 파블로 시티 내의 사립 초, 고, 대학생들에게 공립학교를 다니는 자신들의 또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동료의식 배양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빈곤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볼 것이며, 이 때, '세계가 100 명의 마을이라면' 체험활동 응용할 예정입니다.
- 공립초등학교 학생들과의 미팅 : 산 파블로 시티 내의 공립 초등학교(피딩을 하러 가는 바공포옥 초등학교, 발록 내의 발록 산또니노 초등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가서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2. 문집 만들기

- 1 의 과정을 통해 모인 이야기를 하나의 문집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3. 빈곤퇴치 마라톤 대회

- 10 월 17 일 빈곤퇴치 캠페인과 유사하게 1 월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YMCA Of San Pablo City 와 라온아띠의 활동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마라톤 조직의 도움을 얻어 실행에 옮길 예정이며, 등판 번호 대신에 End Poverty 배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8. 칭찬타임

- ♣ 라온아띠 필리핀 팀은 매주 토요일 정기 회의 시간에 칭찬타임을 갖습니다. 한 명의 팀원을 지목해 일주일 동안 칭찬거리를 찾은 후 다른 팀원들이 그 팀원을 칭찬하는 방식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라온아띠 일정

동안 한번쯤 쉬어가자는 의미도 있고,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 줌으로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 **민수** :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농구를 통해 함께 어울리면서 부족한 영어 실력을 보완하는 것 같다.

◆ **순규** : (11 월 대상자)

◆ **예은** : 초반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 팀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다른 해석을 던져준다. 일을 참 열심히 하고, 리더 보조도 잘 해준다. 주변 이야기를 많이 물어다 가르쳐 준다.

◆ **금선** : 타갈로그어를 열심히 한다. 다른 팀원들이 바탕와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준 것 같다. 부지런하다.

9. 이 달의 타갈로그어 문장

- **Manny(민수)** : Ako ay gutom parin (I'm still hungry, 아직 배가 고파요.)
- **Sean(순규)** : Wala nang Tira (Do not make leftovers, 남기지 마세요.)
- **Liz(예은)** : Ayaw kong tumakbo pero gusto kong sumagkay ng bisikleta at lumakad. (I don't like to run, but I like to ride a bicycle and take a walk, 뛰는 것은 싫어하지만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좋아해요.)
- **Jina(금선)** : Bawal manigarilyo sa loob nang gym. (Don't smoke inside of the gym, 체육관 안에서 담배피지 마세요.)

10. 이달의 사진



<바공포옥 초등학교에서 라온아띠의 활약 - 피딩 프로그램>

* **선정 이유:** 필모니팀의 활약은 바공포옥에서 계속됩니다! 필리핀 도착 이후 공휴일을 제외하면 항상 함께 해왔던 바공포옥에서의 피딩 프로그램! 좋은 사진이 너무 많아서 결국 팀원들 베스트 샷으로 결정했습니다! 장보기부터 설거지까지, 아직까지는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여 라온아띠와 산 파블로 Y 가 모든 일을 처리하지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피딩 활동 사진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조금씩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다음날에는 바공포옥 친구들이 더 즐거워 졌으면 좋겠습니다!

* **주목할 점:** 예은 단원의 열정, 금선단원의 인기, 순규 단원의 각도선정, 민수단원의 행복함

II. 이달의 인물 : Batang Y (Jeffrey, Bernie, and Ryan)

- (Local in-house volunteers of YMCA of San Pablo city)



<Jeffrey>



<Bernie>



<Ryan>

1. 산 파블로 YMCA 에 오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Jeffrey : 만약 제가 지금 YMCA 에 있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아마 제 일과는 매우 단순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로 오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오전 8 시 40 분부터 오후 2 시 30 분 정도까지 6 시간 가량 TV 를 봤죠. 그러다가 나가고 싶을 때면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갔는데, 주로 강에 가서 계를 잡고, 그걸 요리해 먹곤 했어요. 물론 친구들이랑 같이 담배를 피우기도 했죠.

때때로 농작물을 수확할 때에 부모님이 저의 일손을 필요로 하시면, 그 때마다 부모님을 도와드렸어요. 한국에서는 농사일을 할 때 기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농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서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이게 여기 오기 전의 제 일과였어요.



Bernie : 제가 만약 지금 산 파블로 YMCA 에 있지 않았다면, 아마 트라이씨클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13 살 때부터 21 살 때까지 트라이씨클을 몰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주로 4 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아침은 10 시쯤 먹고, 자정쯤 되어서야 일을 끝내고 잠들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트라이씨클을 몰아서 번 돈으로 점심에 먹을 반찬을 사오길 기다리시곤 했죠. 일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는 제게 돈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외할아버지 댁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유로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도 안 하시고, 늘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학대했는데, 저한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며 절 싫어하셨죠. 사실 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데도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마 행동도 아버지와 비슷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무튼 제가 지금 YMCA 에 없다면, 아마 여전히 트라이씨클을 몰면서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Ryan : 저는 16 살 때부터 집안일을 전담하다시피 했어요. 2007 년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여기 오기 전에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저의 일과는 주부의 일과와 비슷했어요. 매일 6 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오후 3 시쯤에는 요리할 때 쓸 나무를 구하러 나갔죠. 가스를 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요리할 때 쓸 나무를 손수 구하러 다녀야만 했어요. 그 뒤에는 다시 저녁밥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가서 일하시다가 저녁 때에야 들어오셨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 저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저를 때리셨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나가서 친구네서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거나 했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나 새어머니는 절 찾지도, 신경을 쓰지도 않으셨어요.

2. 산 파블로 YMCA 에 오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Jeffrey : 저는 2009 년 12 월에 이 곳에 오게 되었는데, 그 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점이 달라졌어요. 사실 처음 여기에 왔을 때는 1 주일 정도만 머무를 예정이었는데 많이 길어졌죠. 예전의 저는 지금과는 달리 말이 많지 않았어요. 적절하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혹시나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살까 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농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와는 다르게 말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화낸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사람들과도 문제 없이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를 YMCA 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준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이 곳에 머무르는 이유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Bernie : 저는 집보다 여기에서 사는 게 행복해요. 다행히도 이 곳에 온 이후에, ALS 시험도 한 번에 통과했고, CIT 에서의 housekeeping course 도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 트라이씨클 기사보다 더 좋은 직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이제 제가 할아버지 댁에 찾아가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대해주세요. 한 번도 저를 손자로 인정해주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제가 할아버지의 손자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처음 할아버지께서 저를 손자로 인정해주셨을 때,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곳에 오기 전에 집에서의 경험과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많이 웃지도 않았었는데, 여기서 살면서 그래도 행복하고,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Ryan :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됐지만, 집보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집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왔고, 주로 나쁜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집안일을 하는 건 새엄마의 일이기도 한데, 제가 그걸 다 전담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온 이후로는, YMCA 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고, 또 같이 사는 Jeffrey 나 Bernie 에게서도 많은 영감을 받곤 해요. 이제 집에서와는 달리, ALS 시험을 통과하는 등의 제 미래를 위한 목표가 생겼어요.



3.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Jeffrey : 지금 저의 가장 큰 목표는 ALS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미 2 번 떨어진 경험이 있고, 그 때마다 저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것 같아서 좌절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좌절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Bernie : 제 목표는 최소한 고등학교 공부를 끝내는 거였는데, 이제 그 목표는 이루었고요.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제 꿈인데 아마 내년쯤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Ryan : 제 목표도 ALS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시험 통과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12. 한국 & 필리핀 문화비교 (이번 달 : 라일라 소스?)

열대기후 국가답게 필리핀에는 다양한 과일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하는 과일들이 이곳에서는 지천에 널려있다. 코코넛이나 람부탄 같은 경우 워낙 흔한 과일이다 보니 주인이 있는 과일나무에 타인이 손을 대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과일을 먹을 때 특이한 점이 한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과일에 곁들여 먹는 소스들이다. 그것은 바로 소금과 새우젓.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문화지만 필리핀인 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문화이다. 대부분의 과일들이 워낙 달고 시다 보니, 이들의 설명에 따르며 맛을 조금이라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특별한(?) 소스들을 곁들인다고 한다.

우리 팀원들도 물론 시도해 보았다. 소금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 했는데 새우젓이나 생선소스 같은 경우는 다들 고개를 내저었다. 이곳의 새우젓은 우리나라의 것보다는 냄새가 덜 나고 맛도 생각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우젓은 새우젓이다.

망고, 람부탄, 코코넛, 파파야, 파인애플 등 싸고 맛난 과일들이 가득 차 있는 필리핀이지만, 아직까지 매직소스(?)와 과일을 곁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13. Meatless Monday & 나비효과, 나의 효과

1. Meatless Monday

● **Manny(민수)** : 최근 들어서는 Meatless Monday 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 한 것 같다. 고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생선 반찬인데, 생선을 싫어해서 이날에는 밥 먹는 게 힘들다.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억지로 실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나비효과를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다.

● **Sean(순규)** : 이번 달은 제대로 지켰나 생각해 보았는데, 잊어버리고 지나친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Meatless Monday 를 끝까지 사수하고자 가끔 실수로 나온 고기를 안 먹는 의지를 보였는데..... 바로 다음주에 잊어버리고 그대로 고기를 섭취했습니다ㅠㅠ. 그래도 긍정적인 건 산파블로 Y 사람들도 점점 이 날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같고 처음보다는 채소식단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팀 회의를 통해 Y 내에서 조그마한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Meatless Monday 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강조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가서도 이 날만큼은 꼭 지키고 싶네요.

● **Liz(예은)** :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의 식단을 보면 고기를 참 많이 먹는다. 물론 이곳은 총장님께서 야채를 잘 드시지 못한다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식탁에 고기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도 조미료에도 육류성분이 들어가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월요일에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먹는 고기가 많으니 정말 고기를 1그램도 먹지 않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고기 없는 월요일 자체를 까먹게 되는 것도 어려운 점 중 하나다. 저녁이 되어서야 고기 없는 월요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도 있다.

고기를 안 먹는 것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축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탄소배출을 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육류가 1그램도 들어가 있지 않은 식탁을 차리는 것이 꽤나 힘들기에, 후자의 방법을 병행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 같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과, 가축을 사 먹는 사람들, 양쪽의 노력이 동시에 나타날 때,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

● **Jina(금선)** : 이번 달에는 사실 Meatless Monday 를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이 Meatless Monday 라는 걸 깜박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Meatless Monday 를 잊지 않고 있다면, 고기 없는 식단으로 식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까먹게 돼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많아야 일주일에 한 두 끼 고기를 먹곤 했기 때문에 채식 식단도 저한테 어렵진 않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월요일이 Meatless 라는 걸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2. 나비효과 나의 효과

● **Manny** :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과제처럼 시작했다. 또한 내가 자원을 아킴으로써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 조금이라도 넘치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진다. 좋은 습관이니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나 하나 자원을 아낀다고 해서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런 습관들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Sean** : 개인적으로는 반성을 많이 해야 하는 달 같습니다. 물 아껴 쓰기에 이어 대기전력최소화 하기를 이번 달 과제로 정했는데 거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노트북에 핸드폰까지, 사용해야 할 전자제품이 많다 보니 수시로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충전이 다 되었음에도 전기코드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죠. 사실 Y의 전기 값이 생각보다 어마어마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기를 아끼자고 강요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앞장서서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 **Liz** : 이번 달에는 샴푸를 비롯해 다른 세제도 아껴 사용했다. 양치컵 받아쓰기도 잘하고 있다. 4 일에 한번씩 설거지가 돌아오는데 설거지를 할 때 세제를 덜 쓰고, 컵이나 비교적 깨끗한 접시들은 물로만 여러 번

담는다. 세제를 안 쓰니 물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은 있는 듯 하다. 이번 달에는 장을 보러 갈 때 배낭이나 손가방을 들고 가는, 새로운 나비효과 실천도 시작했다. 이곳 필리핀은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아직 재래시장에서는 비닐봉지를 매우 많이 쓴다. 배낭을 들고 가서 물건들을 담는 데 쓰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잘한 물건들은 비닐봉지에 담는다. 퓨어골드라는 큰 상점에도 자주 가는 편인데, 그 곳에서는 비닐봉지는 안 쓰지만, 종이봉투는 사용한다. 종이봉투가 비닐봉지보다 친환경적인 것은 맞지만, 그런 종이봉투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나무는 베이고 있을 테니, 아무리 종이봉투라도 안심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 가방에 담거나 그냥 손에 들고 온다. 좀 큰 손가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YMCA와 친분이 있는 띠따 그레이스라는 분에게 비닐주스를 먹고 난 뒤에 생긴 쓰레기로 에코백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 드렸다. 흔쾌히 승낙하셨고, 지금은 그 비닐주스 쓰레기를 모으는 중이다.

● **Jina** : 이번 달에 제가 실천한 나비효과, 나의 효과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건, 웬만하면 트라이씨클을 타지 않고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바공포옥 초등학교에 피딩하러 오갈 때나, 편지를 부치러 우체국을 오갈 때, 혹은 가끔 시장에 갈 때 웬만하면 걸어 다니려고 노력했어요. 매연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절약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도 물을 아껴 쓰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물 쓸 때 의식적으로 절약하려고 노력하려고요.

14. 한 달을 마무리 하며...

♪ Manny

Reflection 중에 사무총장님이 우리 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라온아띠는 경쟁이 아니다. 경쟁하지 말아라!'. 솔직히 나는 다른 팀원보다 더 잘하고, 눈에 띄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 말 자체는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았다. 전국 각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무리 자원 활동이라도 무의식적으로 남보다 잘 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 그게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하면 착한 아이, 공부를 못 하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나쁜 아이라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것이 인정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이 것은 팀 활동이고, 이기심을 버리고 시작한 자원 활동이니까. 자신은 원래 어떤 일을 하든지 천천히 여유롭게 하는데, 그로 인해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줬을까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팀원이 있었다. 성과물을 얻기 위한 활동이라면 속도가 느린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라온아띠이다.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같은 찌리(?)들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서로 맞는 사람끼리 한 팀으로 묶었으리라. 솔직히 처음 라온아띠에 합격 명단을 봤을 때 한숨이 나왔었다. 다른 팀원들은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인데 그에 반해 나는 같은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지방의 작은 학교의 학생이라는 게 열등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열등 의식은 사라졌다. 남들이 나보다 잘 하는 만큼, 나 또한 남보다 잘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온아띠는 팀 활동이다. 누가 더 잘하고, 못 하고를 나눌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단지 함께 할 뿐이다.

♪ Sean

고민이 가득한 10 월

이곳에서 첫 달이 기쁨으로만 가득 찼다면, 두 번째 달인 10 월은 기쁨과 고민이 상존하는 시기인 것 같다. 지난달에 그저 즐거움에만 심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작에 이런 고민들을 왜 하지 못했었는지 후회도 되고 짜증도 난다.

사실 10 월이 되어서야 고정프로그램을 무엇을 할까 이야기 하고 있다. 월드챌린지와 앤드포버티를 제외하면 바공포옥 피딩 이외에는 아무런 고정 스케줄이 없었던 10 월을 돌아켜 보니 내가 지난달에 무엇을 했나 싶기도 하다. 오늘은 특히 고민이 더 많다.

정규스태프가 총장님 딱 한명인 산 파블로 Y 는 총장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시다 보니 항상 문제는 존재한다. 또한 이곳의 일 처리 방식에, 또 가끔 벌어지는 미흡한 정보전달로 인해 답답할 대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전 기수가 했던 노력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 되지 않은 느낌이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서 내가 괜히 급히 가려는 것은 아닌지, 그냥 정해주는 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느낌은 왜 드는 것인지..... 최소한의 고정프로그램 안에서 우리의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의 처음부터 총장님과의 상의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아쉬운 점은 조그만 이 작업이 빨리 진행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라온아띠로서 5 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인가 해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입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속하고 싶은 Y 의 입장. 사실 이해가 가면서도 고정된 스케줄이 아직은 없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다.

물론 10 월이 마냥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훈련 때 누군가가 8 기가 라온아띠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을 때 "모자라서 뽑았습니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라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Y 의 상황과 고민 속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한마디로 10 월은 희로애락이 상존하는 달인 것 같다.

보고서에 꼭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부정적인 것도 서로 나눈다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고민과 짜증이 가득 찬 10 월이라고 해서 이곳에 살기 싫거나 좌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월 첫 주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고정된 스케줄에서 움직일 예정이다. 또 총장님과 함께 여행도 다닐 예정이다. 미련으로 가득한 10 월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준비해야겠다. 10 월을 아쉬웠던 달이라고 여기지 말고 더 나은 활동을 위한 준비단계였다고 생각해야겠다!

♪ Liz

지난 10 월 한 달 간은 역시나 많은 일이 있었다. 지난 10 월 중순의 앤드 포버티 캠페인을 위해 이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고, 급하게 준비한 감이 있지만, 월드 챌린지 캠페인도 소박하게 잘 마쳤다. 캠페인 이후에는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후속활동 계획도 했고, 11 월이 되기 전에 앞으로 할 활동들의 고정 스케줄 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탄생한 주간 시간표. 시간표 군데 군데 박힌 스케줄이 그냥 좋다. 그 시간에 그 곳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 기대된다. 바공포옥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대안학교(알스) 수업 시간에 만날 발록과 산 그레고리오, 가와드 칼링아의 청소년들과 바탕와이들. 이곳 총장님과, 우리 팀과, 그 밖에 도와주시는 분들과 오랜 이야기를 나눈 끝에 나온 계획들. 짜여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짠 스케줄이라서 더 정감이 가고, 책임감 갖고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스케줄이 나오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걸린 것 같다. 그래도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백 배는 낫다. 우리의 입김을 불어넣고, 우리의 손길이 닿은 부분이 많아서 좋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총장님과 그 밖의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서 말끔히 해소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서 제법 괜찮은 일정들이 나왔다. 흑자는 별 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나는 정말로 뿌듯하다.

한국이 아닌 '필리핀'에서 산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진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과 음식의 맛도 이제는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대충 정해져 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반두리안(필리핀 전통악기)를 구입했다. 할 일 다하고 악기를 사자고 마음 먹었는데, 그랬다가는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 주고 약기를 샀다. 잘 산 것 같다. 덧붙여 약기를 사라고 부추겨 준(?) 꾸야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바탕와이 세 명이 다 고생을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성숙하고 참을성이 남다르다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착하고 성실하다. 불평을 할 줄 모른다. 그리고 바탕와이와 총장님의 관계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도 그들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는 매우 깊고 지극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의 사는 법을 존중하고 때론 의아한 부분이 있어도 날이 선 비판을 하기 보다는 일단 기다리고 관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참는 내가 정말 많은 질문을 해도 침착하고 솔직하게 대답해주시는 마미에게도 고맙다. 마미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궁금하면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겨서 하는 편인데, 이런 성향은 이곳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Jina

9월 보고서를 쓴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보고서를 쓰고 있다니 시간이 무서울 정도로 빨리 가고 있다. 필리핀에 온 지 2달이 지났고, 나는 9월과 마찬가지로 정말 잘 살고 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니 오히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은 분명히 9월과는 달랐다. 9월은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반면에, 10월은 물론 행복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였다. 아무래도 9월은 우리의 적응 기간이었던 지라 매일같이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정신 없이 보냈지만, 10월에는 9월보다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또 우리의 고정 스케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산다는 것 이외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무얼 하고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10월에는 두 번의 큰 행사가 있었다. 10월 13일 World Challenge 와 10월 17일 End Poverty Campaign 인데, 그 두 가지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들도 많았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남긴

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더 개선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End Poverty Campaign 이 끝나고 나서 뭔가 과제 하나를 끝낸 기분이 들면서, 진이 약간 빠졌던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10 월에는 내가 팀 리더였는데, 이런 나의 모습이 팀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자신에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뭐가 어찌 되었든 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이 이 곳, 산 파블로 시티에 조금씩 더 동화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침에 조깅하러 Sampaloc lake 에 가는 길도, 시장에 가는 길도 익숙하고, 정신 없이 지나다니는 트라이씨클과 지프니 사이로 길을 건너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가끔은 사람들이 나에게 타갈로그어로 뭐를 막 물어본다. 물론 아직 많이 알아들을 수는 없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만큼 내가 이 사회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다. 마미가 종종 나에게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필리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할 정도로, 이 곳에서 정말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 개월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